

조달청, 22억여원 시설공사 입찰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강원도내 22억여원의 시설공사입찰을 31일 진행한다.

이번 도내 입찰은 모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건수는 모두 2건이다. 입찰내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올림픽 빅에어 경기장 시설공사(추정가격 13억6500만원)와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의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공사(추정가격 8억7700만원)로 각각 31일 개찰한다

SOC 불용예산 줄인 지자체에 인센티브 준다

정부, 보조사업 집행실적 공개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정부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SOC(사회기반시설)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를 열어 불용예산 최소화 및 SOC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과 2017년도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예산은 지난 25일 기준 총 9조6000억원 중 8조3000억원이 집행돼 10월 계획(8조1000억원) 대비 2000

억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과 달리 SOC 등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은 쓰지 못해 이월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예산 불용률을 2%대로 낮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2016년 3.2%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OC예산의 경우에는 2조7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주요 사업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집행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지자체 및 지방교

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달라”면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통해 보조 및 출연사업 집행 부진을 해소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 독려하고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이월, 불용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변경 소요를 줄이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조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